

2017 학년도 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 강의계획서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분반	학점	이론	실습	학년	수업대상전공
	아시아의 힘		2	2			전교생
수업시간	<p>본 강의는 2학점 과목으로 총 30시간을 이수해야한다.</p> <p>인도네시아 현지 파견을 앞둔 1주, 도착 후 1 주, 현지의 일정을 제외한 총 2주에 걸쳐 매일 2시간 씩 10일간 (월~금)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p> <p>단,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이나 탐방의 경우는 강의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p> <p>본 강의는 담당 교수의 강의 외에도 아시아 대상국가 탐방, 자료 조사, 관련 서적 독서 클럽 운영 등을 같이 진행하게 되어 강의실에서의 수업 외에도 외부 활동 수업이 많이 수반된다.</p>						
담당교수	성 명	신 은 규					
	연구실	글로벌빌리지 321호			연락처	051-320-2729, 010-6793-1472	
	E-mail	shine@dongseo.ac.kr , shine@khu.ac.kr					
	홈페이지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원어수업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독후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업태도 및 현지에서의 활동(적극성, 성실성, 전문성), 발표, 그리고 보고서 점수로 평가된다.					

교 재

교재	저 서 명	저 자	출 판 사	발행년도	정 가
주교재	How Asia Works	Joe Studwell	frombooks	2016	23,000원

수업계획

교과목해설
<p>『아시아의 힘(원제: How Asia Works)』은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과 자신의 블로그에서 강력 추천한 '2015년 올해의 책'이다.</p> <p>이제껏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혼란스럽게 오간 동아시아에서 성장의 승패를 좌우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애써왔다. 지리, 기후 조건, 교육 수준, 정치 상황 등 수많은 요소가</p>

검토됐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다. 이 책의 저자 조 스티드웰은 학계의 오랜 논쟁을 잠재우고,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3가지 공식을 찾아냈다.

그가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끈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토지 · 제조업 · 금융 부문의 정책이다. 토지를 재분배하고 가족농을 지원하라. 잉여 수입을 저축으로 유도하고 그 자금이 제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라. 금융을 개방하지 말고, 은행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라. 스티드웰은 아시아 국가들을 직접 탐사하며 이 3가지 정책이 실행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빌 게이츠는 그의 공식에 대해 ‘상쾌할 만큼 명확하다’고 찬사를 보냈으며, 최근 10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올해에 내가 읽은 경제서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빌앤드멜린다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선사업, 공공의료, 교육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빌 게이츠가 최근엔 ‘억만장자 서평가(The Billionaire Book Critic)’로 다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의 블로그 ‘게이츠 노트(Gatesnote)’에는 2010년부터 200여 건에 달하는 서평이 실려 있으며, 그가 추천하는 도서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독서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빌 게이츠가 2015년 TED 강연회와 게이츠 노트 블로그를 통해 ‘올해의 책’으로 꼽은 책, 『아시아의 힘(원제: How Asia Works)』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인 조 스티드웰이, 개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즉 “일본, 대만, 한국, 중국 같은 국가는 어떻게 고도성장을 했는가?”와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드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지금, 한국의 독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압축성장’, ‘고도성장’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동아시아 국가, 특히 서구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뤄낸 산업화를 20년 만에 달성한 중국의 경제성장 대가가 혹독할 것이란 예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중국은 증시 폭락으로 새해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중국은 13억이라는 노동력, 소위 ‘인구 보너스’라는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상에서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며, 지난 30여 년간 고공행진을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對中)수출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폐렴을 앓는다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때 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눈속임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빈곤해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 한국과 같은 성숙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조 스티드웰은 『아시아의 힘』에서 그에 대한 답을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제시한다. 중국 경제와 대(對)중국 투자를 다루는 경제 전문지 「차이나이코노믹퀴터리」의 편집장이기도 한, 이 책의 저자 조 스티드웰은 오랜 연구과 치밀한 분석,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절대적인 공식을 찾아냈다. 이제껏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혼란스럽게 오간 동아시아에서 성장의 승패를 좌우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지리, 기후 조건, 교육 수준, 정치 상황 등 여러 부문을 통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조 스티드웰은 학계의 오랜 논쟁을 잠재우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닌 국가 주도의 3가지 정책이라고 정리했다.

수업목표

폭락하는 중국 증시, 꺼져가는 버블의 증거인가, 극복가능한 성장통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성찰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본 수업에서 채택한 교재의 저자가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끈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토지개혁을 통한 농업 개발, 제조업 및 수출 촉진,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금융 등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다. 1) 토지를 재분배하고 가족농을 지원하라. 2) 잉여 수입을 저축으로 유도하고 그 자금이 제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라. 3) 금융을 개방하지 말고, 은행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라.

스티드웰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3가지 정책이 실행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빌 게이츠는 그의 3요소 공식에 대해 '상쾌할 만큼 명확하다'고 찬사를 보냈으며, 최근 10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올해에 내가 읽은 경제서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2013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예일대학교 경제학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최근 중국의 버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정부는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 반면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파리 경제대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며, 이는 곧 자본주의 그 자체를 공격할 거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자본주의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통제경제 체제, 둘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를 내세우며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 자유시장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와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무리,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스티드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개발 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개발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경제학'이란 없다고 단언한다. 개발 초기에 필요한 경제학과 개발 후기에 필요한 경제학이 서로 다를 뿐, 절대적으로 옳은 경제이론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또한 아직 개발의 도중에 있으며, 여전히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아직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을 키우지 못했다. 한 국가의 전망을 좌우하는 것은 통치와 정책의 질이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부를 창출하는 신화적 '비법'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조정을 중단하면 국가는 취약해진다."

저자는 책 말미에, 맺음말 제목을 '거짓말 배우기'라고 붙였다. 의미심장한 제목이다.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서 장기적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개입이었다. 그러나 빈국이 '자유시장' 경제학을 따르라는 서구의 지적 패권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빈국은 부국들이 홍보하는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공표한 다음, 뒤에서 조용히 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에 정치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제학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신고전파 학자들을 향해 스티드웰은 말한다.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시장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쳐진다." 스티드웰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에 나선 국가의 운명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첨언한다. 이런 그의 주장은 여전히 학자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대전 직후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100~600달러 수준이던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이후 25년 동안 최소 7%의 연성장률을 기록했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었지만, 고속성장의 역사는 거리 건축물 하나에도 그 흔적을 남겼다. 조 스타드웰은 20년 이상 방송인, 교수 등으로 활약해온 아시아 경제 전문가이자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다. 그는 3가지 공식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치밀하게 전개해가는 한편, '여정'을 통해 각 나라를 직접 찾아가 골목골목을 누비며 경제 성장과 실패의 풍경을 현장감 있게 묘사한다.

특히 한국을 탐사하는 여정이 흥미진진하다. 그가 한국에서 주의 깊게 본 것은 박정희의 흔적이다. 박정희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박정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강국을 만든 구원자다' 또는 '허상뿐인 경제지표를 쫓고 권력 욕심만을 채운 개발독재자일 뿐이다'. 스타드웰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 그는 서울을 탐사하며 박정희와 기업인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장소로 청와대, 경제기획원에 이어 서대문형무소를 지목한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 12일 만에 부정축재 규제를 근거로 기업인들을 체포했다. 수감된 이들은 정부에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협박받았고, 삼성 이병철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경제재건축진회를 만들었다.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은 비록 비민주적이었으나, 독일과 일본의 선례를 따랐기에 역사적 근거가 확실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정희의 경제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에, 스타드웰은 이를 '역사가의 승리'라 이름 붙인다.

서울에 이어 포항과 울산에서는 현대와 포스코의 공장들을 살피며 한국 기업의 성장 과정을 들려준다. 박정희는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압박했다. 수출 실적을 낸 기업은 용자와 인프라를 제공해 산업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고, 부진한 기업은 강제 합병을 시키거나 파산하게 두었다. 기업들은 군부의 조사를 받고, 국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벌였으며, 매달 경제기획원에 수출 실적을 보고했다. 박정희의 폭압, 기업들의 탐욕과 생존 경쟁, 그리고 국가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노동자에 대한 무심함까지, 스타드웰은 자신이 본 한국의 모든 것을 생생한 필치로 읊었다.

수업개요

본 강좌는 아너소사이어티에 소속된 4학년 4~6명과 유별난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학생 및 성적저조자 4~6명으로 구성하여 서로 상이한 학과생들이 공통적인 교양강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계획되며, 담당 교수는 전임 교수 1명(보건행정학과 신은규 교수)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강의를 수행하도록 한다. 본 강의는 해외탐방이 있기 전 계절학기가 진행되는 기간 중 한 주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국내에서 자료조사를 시행한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외 현장에서 본 강의 후반부를 진행하며 귀국 후 자료조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 주동안 매일 2시간씩 할애하면서 본교 자매결연 대학과의 네트워크 확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수업방법

수업 진행은 교수의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표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가 중요시 된다. 학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본인의 현재 국제화 역량 및 상태를 파악하고,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해가면서 동료 학생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그리고, 현지 방문을 통해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통찰하고 아시아의 경제성장 역량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나간다.

본 수업은 현지에서 현장성있는 강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수업의 주요한 방법은 강의전달이 되겠으며 강의로 인한 과제제출 말고도 학생과의 현장 교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 더욱더 현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업방법 또한 선택하고자 한다.

시 험

과제물로 대체한다.

과 제 물						
수업진행에 대한 참여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본 수업에서 토론 및 수업태도에 대한 점수 배점은 20%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교양과목인 점을 참작하여 교내활동 중 튜터링 및 학생생활에 대한 활동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한다.						

강의계획 및 내용

주순	차시	강의범위 및 내용	수업 방식 및 기타 참고사항			
			수업 방식	기자재사용 내용	과제물 및 기타	구분
1	1,2	오리엔테이션 본인 소개 및 반장선출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3,4	교재 구입 및 발표 순서 결정 인도네시아 현지 일정 논의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5,6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 이해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7,8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이해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9,10	인도네시아 현지 일정 확정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2	1,2	welcomeing party 현지 오리엔테이션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3,4	Ciputra University 총장 강의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5,6	Orientation, Overview & 인도네시아시장 개황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7,8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정책과 한국의 경제 정책의 비교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9,10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정책 및 규제 관련 법령 산업 육성 사업 사례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3	1,2	현장 방문(Surabaya 현장 견학)	견학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3,4	Surabaya 현장 견학 한국 및 부산과 비교 / 연구	견학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5,6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 비교 외국인 자본 유입 장벽에 대한 분석 한국 및 인도네시아 제조산업의 고객 특성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7,8	인도네시아 현지 현황 인도네시아 현지 서비스인력 유출 및 유입 동향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인도네시아인의 대상 국가 선호 요인 분석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방안				
	9,10	인도네시아 현지시장 진출 방안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4	1,2	문화에 따른 시장 세분화 인도네시아 시장 세분화의 개념적 이해 인도네시아의 잠재고객 발굴조사 인도네시아 표적 시장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3,4	개인별별 발표 및 평가 상호 토론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5,6	조별 보고서 작성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7,8	조별 보고서 검토 및 수정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9,10	조별 보고서 제출	강의 및 토론	Computer & Projector		